

# 李, '균형발전' 주제 첫 세종 국무회의... "기업 이전에 세제·재정·금융 지원"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 빨리 집무실 지어 옮겨야”  
“국가균형발전, 선택이 아닌 운명...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 주춧돌”  
“청년고용난 해결,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력도 필요... 힘 합쳐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주재했다. 특히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인센티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형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산 대통령실보좌관 겸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기업의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의견에는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인센티브를 좀 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정부와 힘 합쳐서 통상과교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힘을 합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하여서 청년일자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처럼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균형성장방안 보고를 들으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가 늘었다고 기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기후에너지부로 통합을 앞둔 환경부와 산업부에는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요청했다. 상속세 최대 공제한도를 상향하면 일부

기업인들이 지방에 내려올 의향이 있다는 권위를 보훈부 장관 의견에는 “상속세 깎아준다고 지방으로 갈지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차라리 세금을 걷어서 지방을 가는 데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

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에는 지방으로 가면 정책 금융 이자를 낮춰주는 등 금융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시스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투표... 野 반발·불참 속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여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규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다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구치소 점령 기록이 다수 있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 기록까지 나오고 있는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안전상정 자체도 반대한다. 만약 진행된다면 무기명 표결로 진행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체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애

무기명 투표...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  
민주당 “나경원 선임 반대... 정상적 운영 안 돼”  
국힘 “폭거 될 것... 그런 논리면 나 내려와야”

기를 계속 들으셔야 된다”며 “대부분 의원들께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이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의회에서 추천한 나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되고, 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생각으로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법부 재판 독립의 원칙이라는 절대적인 헌법 원칙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심지어 대통령실의 많은 분위기가 그것을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어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간사가 없어 혐의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저희가) 우르르 나가 논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간사를 선임 안 해주니까 없는 것”이라며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이 너무 편향적이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안 주니까 항의할 길이 없을 때 우르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간사 선임권을 갖고 면책특권 아래서 (민주당이) 온갖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의회가 이

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금치 못 한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제거 구형을 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승됐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는 22일 예정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퇴의 건도 의결했다.

변민선 서울시장 반부패수사대 대장과 노정은 서울시장 반부패수사대 2계 경정은 관공권 피지 사건 관련 증인으로,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위헌성, 국민 피해, 부작용 관련해 증인으로 각각 추가됐다. 신의호 검사는 관공권 피지 관련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여야는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45명 신청했다는 분들을 보면 관공권 피지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됐고 저희는 6명이 채택됐다. (국회)가 수사하겠다는 속내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뉴스시스

## 전남 공직자 출신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시동

### 명칭한 행정부지사 명퇴신청... 여수시장 도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온 전남도 전·현직 간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명칭환(57)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고흥 출신인 명 부지사는 여수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 명퇴 심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명 부지사는 당초 고흥군수나 인접 지역인 순천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수로 선화할 때 대해 그는 “여수를 제2

의 고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6년부터 7년간 여수에서 공직생활을 한 데다 그의 부모도 36년간 여수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 경제 약화, 인구감소 등 여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잘 아는 행정전문가가 여수를 살렸으면 하는 지역 사회의 부름에 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고향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명예퇴직한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도 장성군수직에 도전한다.

소 전 국장은 전남도 정책기획관, 농축산 식품국장, 목포 부시장 등을 지냈다.

소 전 국장은 “30년 넘게 쌓아 온 공직 경험을 토대로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김병주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세국 전 전남도 감사관, 지역배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우흥섭 전 진도부군수,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 등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남 기자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진도아리랑**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Organic & nature

Fresh food 신선한식품

www.jindoairangmall.com

진도아리랑물

고객센터 061. 542. 9631